타락 덕에 불 뿜는 용된 사람들의 믿음

(약3:1~18)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타락 덕에 불 뿜는 용 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타락 덕에 불 뿜는 용 된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용 됐어 용, 용 됐어, 저 사람 용 됐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변변치 못했던 사정에 처해있던 사람이 아주 괄목할만하게 형편이 좋아진 상태, 신분이 바뀐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용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일본이 속한 C조에서 그리스가 조2위로 16강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스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용 된 거지요.

우리는 H조인가에 소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H인지 F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본이 C조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아들아이가 월드컵에 관해서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소원이고, 일본이 16강 못 올라가는 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속한 C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벌써부터 중학생아이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참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게 용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용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용 됐어요.
그리고 용도 그냥 용이 아니에요, 아이들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바벨론 같은데 보면 불 뿜는 용의 조각이라든지,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동화에서 나오는 용들은 다 불을 뿜잖아요.
Fire breathing dragons!
이 숨결에서 불이 나오는 드래건.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얘기에요.
용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덕분에, 모든 사람이 용 돼 가지고 그냥 용도 아니고 불을 뿜는 용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장로님께서 오늘 본문에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 된 이야기를.
그것도, 불 뿜는 용들이 되었기 때문에, '불 뿜는 용들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서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그리고 그 말을 혀로 상징을 합니다.
말이 곧 불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말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언어들이 다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예를 든 것이,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에 가서 따뜻하게 하고, 먹고 배부르게 해서 몸을 좀 도우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하냐? 직접 구제를 해줘야지,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행함 속에는 이런 행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행함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더 내려가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17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지혜와 총명에 관한 얘기가 13절부터 시작 되는데, 지혜와 총명을 합치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도 행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올바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말도 행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말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더 소급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행함의 차원에 속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생각의 차원, 지혜와 총명의 차원, 총명은 이해력이거든요 사고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생각의 차원에서도, 올바른 생각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올바르다면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강조한 그 믿음을 갖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말과 생각 자체가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나오고, 우리의 말이 올바르게 나오고,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조차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까지 다 길을 들이고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인데, 자기 혀를 자기 언어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요.

그 말 속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는 악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악과 독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우리의 언어를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말도 올바라지고 생각도 올바라집니다, 그게 생활화될 때에…
내가 죽었다고 한 번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나면, 지금 야고보 장로가 걱정하는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생활화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생각도 올바른 생각만 하게 되고, 말도 올바른 말만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지만, 말과 생각조차도 올바른 것만 하게 된다는 게 엄청난 일이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러면 오늘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참 야고보 장로님의 깊은 영적 통찰력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 에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의 이야기를.
에덴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불을 뿜는 거라는 겁니다.
불을 뿜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 들어 있는 내가 욕심 때문에 잉태한, 무엇인가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이 들어 있고 악이 들어 있는 불을 뿜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에덴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어있는 마음으로 모셔 들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라는 것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의견이 있으시고 생각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이겠습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 의견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으면, 의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질 못합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에덴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셔 들였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선악과를 따 먹는다는 게 뭐에요?
내 마음에 채워 넣을만한 좋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가려내는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채우면 좋겠다.'
원수를 마음 안에 들여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수가 내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연관돼서 마음속에 원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아래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아서 저 원수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 원수로 인한 상실을 어떻게 내가 제거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과 언어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고 믿는 것들을 집어넣고 나면, 그때부터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을 실제로 손에 쥐기 위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돈이라 그러면 돈을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은 그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본적이 이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

유는 다 뭡니까?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 이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이유에요.
살아 있는 이유는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에덴에만 있어요.
그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름 했기 때문에, 그 동산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쫓겨난 뒤에, 인류가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에덴동산의 경계에 화염검을 두르십니다, 화염검.
불 칼을 두르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인간은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타락 이전이나 타락 후나 어쩔 수없이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움직입니다, 그래야 만족하고 기쁘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향해 가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기쁨은 에덴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도,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에덴을 향하지 않아도, 에덴을 향한다는 의식이 없어도, 에덴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에덴 안에서는 타락 이전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잖아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에덴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좋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마음에 담았어요.
자식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담고서는 이제, 실제로 삶에서 손에 기쁨을 쥐려고 합니다, 만족을 쥐려고 합니다, 행복을 쥐려고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에덴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건 에덴 밖에는 없으니까.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염검에 마음이 닿게 됩니다, 불 칼에 마음이 닿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 칼에 닿게 되면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뭐에요? 자식 때문에 속 탄다 이거에요, 속 탄다.

자식의 무엇을 마음에 담아놓고 기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에덴을 향해 움직여 갖고, 기쁨은 에덴밖에 없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기뻐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에덴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기쁨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에덴 주변에는 화염검이 둘러쳐져 있으니까, 마음이 불길에 닿아 버립니다.
그래갖고 자식 때문에 속이 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식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에덴으로 접근 했으니까 자식 때문에 불이 타는 거예요.

또 돈! 돈을 마음에 담았어요.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사업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뻐하려고 하면 에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업 때문에 기쁘려고 하다보니까 불이 닿아 버렸습니다.
그래 사업 때문에 속이 타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타는 거고, 사업 때문에 속이 타는 거고, 하여간 뭐든지.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팀을 16강에 올려놔야 기쁠 거 같은데, 우리나라 축구팀을 마음에 담고 16강이라는 목표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화염검에 닿아버린 겁니다.
속이 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와 행동이 이 불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걸 담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는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에덴으로 접근하게 됐고, 기쁨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염검에 닿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면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참 이 야고보 장로님이 대단한 통찰력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담을 때부터 지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율배반이지요.
기쁨을 향하고 행복을 원하고 가는데, 불길에 닿아 가지고 나를 태우고, 그런데 속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병이 생긴다고 그러지요, 화병.
이 화병이 생긴다는 게 뭐냐 하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수승! 물은 올리고, 화강! 불은 내린다.
불을 내려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불을 왜 내려서 치료합니까?
원래 배 속 근처는, 배 근처는 따뜻해야 되고 화기가 있어야 되고, 가슴은 수기가 있어서 촉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신이 편안한데, 사람이 화가 나고 긴장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뒤집혀버려서 불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이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병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혜를 짜냅니다, 내가 어떡하든지 내 속에 지금 돈을 품고 있는데, 마음속에 돈을 담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떡하든지 행복해져야 되겠다,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잠깐 기쁩니다,
돈 때문에 망해 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잠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기쁨 때문에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서울대 들어가서 기뻤어요, 서울대 들어간 것이 자식 놈한테도 큰 자랑거리에요, 우리도 자랑거리에요.
그 자랑과 그 교만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진정한 기쁨의 순간들을, 서울대 들어갔다는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다 상실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불태워 버리고 말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도 마찬가지에요, 생각부터가 비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에덴은 화염검으로 둘러쳐진 채로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에덴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은 자는 불타지 않습니다.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났을 때 불을 끄려면 앞쪽에 바람 방향을 잘 고려해서 불길이 올 거라고 예정되는 장소에 미리 불을 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탄 지역에 불이 임하면서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내 죄를 아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담고 살아가는데, 이놈의 걸 도대체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너무 좋아서 이미 내 마음의 살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돈을 빼냅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내 자식을 빼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어떡하든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이 있으면 될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이.
앞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진짜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만 내려온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아무리 요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거리가 없을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 것이 있더라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걱정거리가 없으려면, 위에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 믿어지는 좋을 거라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염검의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판단하고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너희를 대해서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전부 아버지께서 주신 판단과 말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공생애 때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부터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부터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장에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마음에 집어넣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다 불로 나타납니다.
나를 태우고 남을 태우는 불로 나타납니다.
왜? 화염검에 부딪치기 때문에.
기쁨을 향해 가는 한 화염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고, 왜 부딪칩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고, 의견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의 판단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생각들로 채워지게 돼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생각이 나한테서 나올 때,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진정으로 너 자신의 죽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품고 있는 상태에서,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과 행동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 뿜는 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에 뭘 담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자기 손에 주어지면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불 뿜는 용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은 다 불이에요, 화염검에 부딪쳐가지고 나오는 지옥 불을 내 뿜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생각부터 보세요, 생각.
내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지옥 불이에요, 나를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총리 될 때, 어떻게 총리가 될 것인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건데, 뜻이 안 되는 걸 내가 백날 속 태우면서 걱정한들 됩니까?
되도 큰일이고, 되지도 않고, 되도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면, 요셉처럼 총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인간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돈 벌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면 뭐하는 겁니까? 하늘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겁니다.
이 인간세상에서 일등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세상에서 일등하지 않고도, 행복하고 기쁘고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늘이 있다는 걸 알리러 인간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등 하겠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불을 뿜고 사는 용들로 사는 거예요.
용은 성경에서 뱀의 일종이고,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 용된 거예요, 불 뿜는 용들.
화염검에 부딪쳐 가지고 불 뿜는 용들이 되는 거지요.
이제 불 뿜는 용들로써 살아가는 거 그만 둬야 돼요, 용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 돼야 돼요.

에덴에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 지옥 불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불 뿜는 용이 되어서 살아가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지으신 본래의 사람이 될지언정, 아담 타락 덕분에 용 되어 불 뿜고 사는 삶은 중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